2021 ACC ACADEMY 시민 아카데미

PROGRAM BOOK

문화예술
인문사회
ACC 특화강좌

2021
9.30
–
11.9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 ACI 아시아문화원 Asia Culture Institute

CONTENTS

문화예술	라이브클래식 XII	2
인문사회 I	공동체에 진심인 편: 아시아 영화 속 타자와 윤리의 문제	6
인문사회 II	고독한 여행가: 아시아 근대 문화를 일군 사람들	10
ACC 특화강좌	친애하는 빅 브라더	14
	전체일정표	18
	강의실안내	22
	안내사항	23
	오시는 길	24

기간
2021.10.19. ~ 11.09.
매주 화요일 / 4회

시간
19:00 ~ 21:00

장소
문화정보원 극장3,
예술극장 극장2

정원
40명 내외

수강료
60,000원

라이브클래식 XII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김진과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감미로운 바로크 실내악 연주와 해설이 있는 공연식 강연

Bella Italia! – 지도를 따라가는 이탈리아 순회공연

중앙집권적인 프랑스와 달리, 이탈리아는 지방분권으로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되었다. 음악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볼로냐, 베니스로부터 로마, 나폴리에 이르기까지 이태리 전역을 가로지르며 각 지역의 음악이 다양하게 꽃을 피웠다.
볼로냐의 프레스코발디, 베니스의 가브리엘과 카스텔로, 로마의 코렐리, 나폴리의 제미니아니와 스카를라티 등 르네상스시대부터 바로크 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름다운 이태리의 지도와 사진들을 보면서 연주를 감상하는 특별한 여행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Vamos a bailar barroca!? –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에서 함께 춤을 추어요!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남아메리카에서 발전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스페인의 음악에 뿌리를 두고 아메리카 인디언과 아프리카 토속인들의 리듬과 음악적 언어와 합해져서 독특한 음악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양한 음악적 성격이 함께 녹아 형성된 라틴아메리카의 음악은 식민지국가로서의 비극적인 정서를 넘어서 라틴계의 특징인 흥겨움과 열정이 가득한 음악으로 피어났는데 그 중 파사칼리아와 샤콘느 등의 춤곡은 대서양을 건너 유럽의 각지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이번 공연에는 스페인어로 '양념'이라는 뜻인 살사(salsa) 멜로디에 기타와 베이스, 드럼연주를 곁들여 흥겨움과 열정이 가득한 라틴 춤의 세계로 안내한다.

바흐의 여정 – 그의 도시, 그의 인생, 그의 음악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

바흐는 동시대의 다른 작곡가들과 달리 자국인 독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생동안 음악활동을 하였다. 그의 음악은 독일 음악의 전통에 뿌리를 두었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타일을 고루 흡수하여 새로운 양식을 창조함으로써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집대성하였다.
개성적인 음악 양식의 기초를 이룬 오르간 음악과 초기 칸타타 음악을 작곡했던 아른슈타트(1703-1707) 시기
궁정예배당의 오르가니스트로서 오르간곡과 교회 칸타타 음악을 꽃 피운 바이마르(1708-1717) 시기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작곡했던 쾨텐(1717-1723)시기
마태수난곡, 나단조미사,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등의 걸작을 배출했던 라이프치히(1723-1750)시기
이렇게 그가 머문 각 지역마다 불멸의 작품들을 탄생시켰던 그의 음악 여정은 굴곡진 인생의 여정이자 음악으로 신께 헌신하고자 했던 영적인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바흐가 남긴 작품들을 그가 지나 온 인생 여정과 함께 순례해 보는 특별한 무대로 마련한다.

Baroque Dynasty – 프랑스 궁정에서 꽃피운 바로크음악

"바로크 왕조"라고 불려도 될 만큼, 프랑스에서는 왕권을 중심으로 음악이 발전하였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르사유 궁전 뿐만 아니라 튈르리궁에서도 여러 행사들에 주기적으로 외국의 연주자 및 작곡가들이 초대되어 다양한 공연들이 열렸다. 이렇게 프랑스 음악이 발전하면서 그 영향력은 유럽 전역으로 뻗어 나가기 시작한다. 그 일화 중 하나로, 프랑스 음악에 매료된 텔레만이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 때 작곡되었던 곡이 'Pariser Quartett(파리 4중주)'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바로크음악의 중심이 되었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꽃 피웠던 음악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 어떻게 뻗어나갔는지를 보고 듣는 시청각 여행을 떠나 보기로 한다.

대표 강사

김 진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 서울예고, 서울음대,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과정 수료
- 루지에로 리찌, 지기스발트 쿠이켄 사사
- 벨기에 브뤼지 고음악 콩쿨 입상
- 일본 야마나시 고음악 콩쿨 1위 없는 2위 수상
- 도치기 고음악가상 수상
- 유럽의 바로크 오케스트라 라 쁘삐드방드와 1993년부터 세계 각국에서 연주
- 미국과 일본의 다수 바로크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초청연주
- 한국, 미국, 일본의 다수 대학에서 마스터클래스와 강의 연주
- 2002년 바로크 앙상블 〈 무지카 글로리피카 〉창단, 국제적인 연주 활동 중

차수	일자	주제	강사 및 연주진	장소
제1강	10.19	Bella Italia! – 지도를 따라가는 이탈리아 순회공연	김진(바로크 바이올린) 전현호(리코더) 아렌트 흐로스펠트(첨발로) 바로크 첼로	문화 정보원 극장3
제2강	10.26	¡Vamos a bailar barroca! –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에서 함께 춤을 추어요!	김진(바로크 바이올린) 전현호(리코더) 김성수(베이스) 오종대(드럼) 윤현종(바로크 기타) 아렌트 흐로스펠트(첨발로) 바로크 첼로	
제3강	11.02	바흐의 여정 – 그의 도시, 그의 인생, 그의 음악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	김진(바로크 바이올린) 최현정(바로크 바이올린) 알렉세이 카노브(비올라) 전현호(리코더) 아렌트 흐로스펠트(첨발로) 바로크 첼로	예술극장 극장2
제4강	11.09	Baroque Dynasty – 프랑스 궁정에서 꽃피운 바로크음악	김진(바로크 바이올린) 전현호(리코더) 이승민(첨발로) 바로크 첼로	

기간
2021.10.12. ~ 11.2.
매주 화요일 / 4회

시간
19:00 ~ 21:00

장소
Zoom 화상 강의

정원
50명 내외

수강료
무료

공동체에 진심인 편: 아시아 영화 속 타자와 윤리의 문제

따져보면 늘 그랬다. 치명적인 전염병, 극악한 외계인의 출현이나 예측 불허인 혜성과 같은 재난, 금지된 욕망의 은밀한 일탈 등, 소재가 무엇이든 영화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공동체'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다. 장애를 합심하여 극복하며 성장하는 소시민, 강력한 자본과 권력 앞에 위태로운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이익 집단들, 혹은 기성 가치와 도덕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망명하는 이들을 통해 영화는 '공동체' 문제를 진지하게 되물었던 셈이다.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대변되는 전 지구적 현상을 계기로, 아시아 영화에서 다루는 다양한 공동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할 공동선, 허위와 폭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다수자들, 시대가 고한 종말을 받아들이고 쓸쓸히 해체되어가는 낡은 삶의 양식들, 혹은 극단적 훼멸(毁滅)로 귀결되는 필패(必敗)의 인생을 통해 영화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전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곧 도래할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같이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타자의 현전이 왜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사유의 단초를 제공하려 한다.
다큐멘터리, 페미니즘 혹은 민속지 영화, 동영상, 각종 이미지 등을 통해 20세기 아시아의 다양한 공동체의 표상을 음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돌봄의 공동체: 아시아 영화와 여성 – 조혜영 프로그래머, 평론가

아시아 지역에서 '돌봄'은 전통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에 일임해온 경향이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 구성원에게 돌봄이 강제적으로 부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돌봄을 어느 한쪽 성별 혹은 좁은 의미의 가족 개념에 기대서는 안 된다. 상호 돌봄이 가능한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과 가족의 의미와 구성을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오기가미 나오코, 2017), 〈브레드위너〉(노라 투메이, 2017), 〈우리집〉(윤가은, 2019)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여성들이 그 주체가 되어 어떻게 돌봄과 가족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공존하는 지킬과 하이드 – 이승민 영화평론가 및 용인대학교 초빙교수

집단과 개인, 늘 둘 사이를 요동치며 살아간다. 팬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집단과 개인의 관계가 전면 재배치되고 새로운 성찰을 요구한다. 무리가 위험하다지만 혼자서는 살 수 없음을 확인하는 시간들.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함께하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야근 대신 뜨개질〉(박소현, 2015), 〈어른이 되면〉(장혜영, 2018), 〈길모퉁이 가게〉(이숙경, 2018), 〈당신의 사월〉(주현숙, 2019), 〈너에게 가는 길〉(변규리, 2021) 등을 다룰 예정이다.

베트남 영화를 통해 본 도시공간과 삶, 공동체의 기억서사 – 심주형 인천대학교 교수

본 강의는 베트남의 도시공간과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아내고 있는 세 편의 베트남 영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해석해 본다. 현대 베트남 영화사를 대표하는 감독인 '인민예술가' 당녓밍(Đặng Nhật Minh)의 〈구아바의 계절(Mùa Ổi)〉(2000) 은 하노이를 배경으로 유년 시절을 보낸 옛집에 대한 기억을 소재로 도시의 변화와 삶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베트남 영화로는 최초로 뉴커런츠상을 수상했던 쩐타잉후이(Trần Thanh Huy) 감독의 〈롬(Ròm)〉(2019)은 90년대 생 감독이 만든 독립영화이다. 호찌민시의 빈민가 '쿠떱테(Khu Tập thể)'를 배경으로 도시 빈민의 삶을 생생하게 재현해 낸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최고 인기 코메디언이자 MC로 활동 중인 쩐타잉(Trấn Thành)이 제작한 상업영화 〈아버지, 죄송해요(Bố Già)〉(2021)는 가난한 오토바이 택시(쎄옴 Xe ôm) 운전수인 아버지가 해체위기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오늘날 베트남 가족의 도시적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대중적 평가에 더해 '코로나 19'시대에도 불구하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흥행기록을 깨뜨리며 역대 최고의 흥행수입을 올린 영화로 등극하였다. 이 세 편의 영화는 각각 고전 예술영화, 독립영화, 상업영화로써 베트남 영화계의 과거와 현재를 가늠해 볼 기회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과 균열의 이중주: 인도 발리우드(Bollywood) 영화의 오늘 – 강내영 경성대학교 교수

본 강연은 2000년대 이후 개봉된 인도 영화를 살펴보고, 영화라는 창을 통해 인도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사회읽기'라는 두 개의 큰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 발리우드란 봄베이(Bombay, 1995년 뭄바이로 개칭)와 할리우드(Hollywood)의 합성어로 인도 뭄바이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되는 인도 공용어 힌디어 영화를 지칭한다. 발리우드 영화를 통해 인도사회의 다인종, 다종교, 다문화 통합 국가이데올로기 등을 심층적으로 읽어 내고자 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재난 속에 공동체의 붕괴와 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도 발리우드 영화는 '쾌락의 원칙'(principle of pleasure) 속에 힌두문화를 중심으로 '하나의 인도'라는 통합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해 왔지만, 지금은 그 과정에서 억눌려왔던 여성, 인권, 휴머

니즘을 비롯한 '억압된 것들의 귀환'이 통합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충돌하는 균열과 탈주의 문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인 탈공동체주의 상황 속에서 팬데믹 재난시대를 맞아, 과연 '하나의 인도'라는 통합이데올로기를 지향해온 인도 발리우드 영화는 대중들에게 또 다른 구원이 될 수 있을까? 〈라가안(Lagaan)〉(아슈토쉬 고와리커, 2001), 〈내 이름은 칸(My Name Is Khan)〉(카란 조하르, 2010), 〈샤말 아저씨 가로등을 끄다(Shyamal Uncle Turns off the Lights)〉(수만 고쉬, 2012), 〈카슈미르의 소녀(Bajrangi Bhaijaan)〉(카비르 칸, 2015), 〈샤룩칸의 팬(Fan)〉(마니쉬 샤르마, 2016) 등을 같이 감상해 본다.

대표 강사

조혜영 프로그래머, 평론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환경영화제 등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영화와 디지털 매체를 연구하고 관련된 글을 쓰고 있다. 현재 중앙대, 경희대 출강 중이며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책임연구를 맡았으며, 공저로 《원본 없는 판타지》, 《을들의 당나귀 귀》, 《소녀들: K-pop, 스크린, 광장》,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오늘》 등이 있다.

이승민 영화평론가 및 용인대학교 초빙교수
현재 영화 연구자, 평론가, 기획자, 강연자로 활동 중이고,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영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 다큐멘터리의 오늘》(공저),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오늘》(공저), 《영화와 공간》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 다큐멘터리 매거진 《Docking》의 고정필진이기도 하다.

심주형 인천대학교 중국·화교문화연구소연구교수
미국 듀크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3년 베트남을 처음 방문한 이후, 베트남 사회문화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국경 지역과 소수민족, 기억의 정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화의 창 – 동남아: 사회, 문화의 혼종적 재구성》(공저), 《열린 동남아: 초국가적 관계와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공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순망치한(脣亡齒寒; Môi Hở Răng Lạnh)과 비대칭성의 구조-베트남·중국 관계와 국경의 역사경관(Historyscapes)〉, 〈탈냉전(Post-Cold War) 시대 '전쟁난민' 재미(在美) 베트남인들의 문화정치: 비엣 타인 응우옌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강내영 경성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영화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중국 베이징사범대학 예술학원에서 영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인도, 영화로 읽다》, 《중국 청년감독 열전: 미지의 청년감독을 찾아서》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열린 아시아, 닫힌 민족주의: 아시아영화 커뮤니티의 성과와 한계〉, 〈미국 할리우드 청년감독 데이미언 샤젤(Damien Chazelle) 연구〉, 〈'흑인영화(black film)'의 계승과 다시쓰기(re-writing): 미국 흑인 청년감독 라이언 쿠글러(Ryan Coogler) 연구〉 등이 있다.

커리큘럼

차수	일자	주제	강사
제1강	10.12	돌봄의 공동체: 아시아 영화와 여성	조혜영 프로그래머
제2강	10.19	공존하는 지킬과 하이드	이승민 평론가
제3강	10.26	베트남 영화를 통해 본 도시공간과 삶, 공동체의 기억서사	심주형 교수
제4강	11.2	통합과 균열의 이중주: 인도 발리우드(Bollywood) 영화의 오늘	강내영 교수

기간
2021.9.30. ~ 10.21.
매주 목요일 / 4회

시간
18:00 ~ 20:00

장소
Zoom 화상 강의

정원
50명 내외

수강료
무료

고독한 여행가: 아시아 근대 문화를 일군 사람들

아시아의 근대는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새로운 문물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이를 직접 목도하고 돌아와 전해준 원주민 여행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목숨을 건 여정과 낯선 풍물을 개의치 않았던 고독한 여행가이자, 선진 사상과 문명을 소개하여 조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열망에 불타는 개혁가들이었다. 아시아 각 나라별 여행가들의 삶과 모험은 그렇게 아시아 근대를 정초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근대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가의 삶을 통해 20세기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기획되었다. 일본에 처음 프랑스 요리를를 소개한 요리사, 영화가 낯설기만 했던 시절 카메라를 들었던 감독, 가부장제의 억압에 전면적으로 맞섰던 여권 운동가, 자신이 쓴 소설로 사형 당한 국민 소설가까지, 이들의 여정은 신산했을지라도 끝내 전대미문의 아시아의 근대 문화를 꽃피웠다.

'여행'을 열쇠말로 하여 20세기 초반 아시아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 이국의 풍광과 문물은 늘 매혹적이지만, 여행가가 되기란 늘 쉽지 않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몽골 현대문학 창시자 나착도르지와 아내 팍마돌람의 슬픈 운명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본 강좌는 몽골 현대문학의 아버지 또는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나착도르지(D. Natsagdorj, 1906-1937)와 그의 첫 아내 팍마돌람(D. Pagmadulam, 1906-1937?)의 업적과 그들이 근현대 몽골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두 사람은 1925-1929년에 러시아(레닌그라드, 현재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독일(베를린, 라이프치히)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그러나 둘은 1929년 다른 유럽 유학생들과 함께 강제 소환되었고, 인민혁명당의 당적이 박탈되었으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합의 이혼하게 된다. 그 후 두 사람의 삶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나착도르지는 국립극장 전속작가, 아카데미 연구원으로 근무했지만 귀족 출신자 또는 서방국가에서 유학한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지목되어 당국에 의한 체포와 구금이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1937년 7월 13일 거리에서 생을 마쳤다. 이혼 후 팍마돌람은 국영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구속되고, 심지어 중국인 거주구역에 들어가 아편쟁이가 되었다는 말이 전해지지만 그 후 그녀가 언제 어떻게 삶을 마쳤는가에 대한 자료도 없다. 두 사람의 짧고 비극적 운명과 대조적으로 근현대 몽골사회에 미친 그들의 영향은 너무나 크다. 나착도르지는 시인, 극작가, 소설가, 사회비평가로서 근현대 몽골문학과 학술계에 지워지지 않은 족적을 남겼고, 팍마돌람은 몽골 최초의 여성연맹 창시자이자 위원장으로서 현대 여성운동의 첫 삽을 떴다.

유키 데이이치와 쓰지 시즈오: 이인삼각의 프랑스 미식 기행 – 김용의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에는 미식가로 정평이 난 예술가 및 요리가가 많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쇼와 시대(1926-1988)에 활약한 기타오지 로산진(北大路魯山人, 1883-1959), 유키 데이이치(湯木貞一, 1901-1997), 쓰지 시즈오(辻静雄, 1933-1993) 세 사람은 일본 음식문화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거장들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본 요식업계의 거물 유키 데이이치와 프랑스 요리 연구가 쓰지 시즈오 두 사람의 프랑스 요리 기행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유키 데이이치는 요식업자로는 처음으로 일본정부에서 문화공로자 수여를 받았으며, 쓰지 시즈오는 지금의 쓰지조리사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일본의 조리교육 및 연구에 공헌하였다.
이 두 사람은 전문 분야나 활동 영역이 달랐지만, 일찍이 이인삼각이 되어 파리의 라 뚜르 다르장을 비롯한 최고급 레스토랑을 섭렵하며 대화하였다. 이들은 이 때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일본의 미도(味道) 확립을 위해서 진력하였다. 강의는 이들의 프랑스 미식 기행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시대를 앞선 페미니스트, 이란 여성 시인 '포루그 파로흐자드'의 삶과 여정 – 구기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이 강의는 시대를 앞선 페미니스트이자, 유럽의 근대성과 젠더 의식을 이란에 소개한 여성 시인 '포루그 파로흐자드(Forugh Farrokhzad)'의 삶과 여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포루그 파로흐자드는 자신의 시와 영화를 통해 강력한 여성주의적 목소리를 냈고, 이에 보수적인 이란 근대 사회에서 파로흐자드의 시대에 앞선 주장은 논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파로흐자드는 1958년에 유럽에서 9개월을 보내고 이란으로 돌아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는 이란 영화의 뉴웨이브로 평가된다. 본 강의를 통해 억압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란 무슬림 여성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지금까지도 이란에서 '저항적인 이미지'의 아이콘이자, 이란 현대시의 선구자로 불리는 파로흐자드의 시와 영화를 통해 그녀의 작가와 감독 그리고 페미니스트로서의 궤적을 함께 추적해 본다.
동시에 파로흐자드뿐 아니라 이란 근대 시기의 여성들의 목소리와 페미니즘 운동을 소개함으로써, 이란 '모던걸즈'의 활약을 함께 경험해 본다. 포루그 파로흐자드의 시 제목처럼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호세 리잘의 삶과 소설, 그리고 필리핀 – 김동엽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교수

호세 리잘은 1861년 6월 19일에 필리핀 라구나주 칼람바의 부유한 집안에서 2남 9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리살은 두 살 때에 알파벳을 배웠고, 다섯 살에는 이미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총명했다. 일찌감치 형 파시아노와 함께 권력에 저항하고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정치사상에 눈을 떴다. 그는 스물한 살이 되던 1882년에 형의 도움으로 부모님 몰래 스페인으로 건너가 마드리드 국립대학교에서 공부하여 의학 학위를 취득한다. 유학 시절 떠나온 조국 필리핀 민중들의 암울한 현실을 유럽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스페인 신부와 지배자들이 필리핀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소설을 집필한다. 이 책이 바로 아시아 최초의 민족주의 소설, 〈Noli Me Tangere(나를 만지지 마라)〉이다. 리살은 오로지 그의 문학 작품으로 인해 사형을 당하고 스페인 지배를 도덕적으로 붕괴시킨 첫 필리핀 사람(First Filipino)으로 기억된다. 그가 처형된 12월 30일은 "리잘의 날"로 지정된 한편, 그가 처형당한 마닐라의 로하스 거리에는 리살 공원을 조성하여 스페인 압제로 희생된 사람들과 그의 평화주의적 혁명 정신을 기리고 있다. 그는 필리핀의 국가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간디, 타고르, 손문 등과 더불어 아시아 전역에 평화주의적 혁명 정신을 널리 퍼뜨린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대표 강사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에서 몽골 근대사로 역사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몽골 연구자로, 몽골 역사 외에도 신화와 종교, 정신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크로드의 삶과 종교》, 《아시아의 죽음 문화–인도에서 몽골까지》 등 20여 권의 책을 공동 저술하고, 《몽골 민간 신화》, 《몽골의 종교》,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등을 우리말로 번역했으며, 몽골사 및 몽골문화에 관한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용의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대학원에서 일본문화학(민속학)으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오키나와 국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현), 게이오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외국인연구원 등을 지냈다. 현재 동아시아일본학회장, 강항문화교류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주로 한일 설화의 비교, 오키나와 문화, 일제강점기 한국문화의 변용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일본 민속 문화의 전통과 현장》, 《흑부리 영감과 내선일체》, 《일본의 스모》, 《21세기 일본 대중문화의 현장》 등이, 주요 역서로 《도노 모노가타리》, 《동중국해문화권》(공역), 《저주 하는 일본인, 저주 받는 일본인》(공역) 등이 있다.

구기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이란의 청년 세대, 무슬림 여성, 중동의 한류현상과 대중문화 그리고 소셜 미디어 활용에 관심을 가지며 학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무슬림 이주 현상과 이슬람 포비아에 대한 인류학자로서의 연구 역시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 선입견과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중동 사회와 문화를 인류학적 현지 경험을 통해 알리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여성 연구자, 선을 넘다: 지구를 누빈 현장연구 전문가 12인의 열정과 공감의 연구 기록》(편저), Participation Culture in the Gulf: Networks, Politics and Identity(공저), 《ASIA CULTURE LAB 2, 3》(공저), 《이란 도시 젊은이, 그들만의 세상 만들기: 국가의 감정 통제와 개인들의 자아 구성》 등이 있다.

김동엽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교수
필리핀 국립대학교 정치학과에서 1990년대 한국과 필리핀의 통신서비스산업 자유화 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술지 《아시아연구》 현 편집위원장이며, 한국동남아학회 부회장이다.
주요 저·역서로는 《필리핀: 한인 이주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정체성》, 《총체적 단위로서의 동남아시아의 인식과 구성》(공저), 《동남아의 이슬람화 2》(공저), 《나를 만지지 마라, I & II》(역서),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공역) 등이 있다.

커리큘럼

차수	일자	주제	강사
제1강	9.30	몽골 현대문학 창시자 나착도르지와 아내 팍마돌람의 슬픈 운명	이평래 교수
제2강	10.7	유키 데이이치와 쓰지 시즈오: 이인삼각의 프랑스 미식 기행	김용의 교수
제3강	10.14	시대를 앞선 페미니스트, 이란 여성 시인 '포루그 파로흐자드'의 삶과 여정	구기연 교수
제4강	10.21	호세 리잘의 삶과 소설, 그리고 필리핀	김동엽 교수

기간
2021.10.2. ~ 10.23.
매주 토요일 / 4회

시간
14:00 ~ 15:40

장소
아카데미 강의실 B

정원
20명 내외

수강료
40,000원

※ 수강혜택 : 〈친애하는 빅 브라더〉 도록 증정 (판매가 18,000원 상당)

친애하는 빅 브라더 (ACC 전시연계)

포스트 파놉티콘적 감시 사회 앞에서 – 한길석 중부대학교 교수

감시사회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주로 전체주의적 감시 양식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조지 오웰의 『1984』는 그 대표적 사례다. 자유주의적 정치 문화가 자리를 잡은 사회라면 전체주의적 감시 양식에 대한 거부는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현대의 감시는 전체주의적 감시 양식만으로 수행되지는 않는다. 현대적 감시는 자발성을 특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자발적 동의에 의한 감시 양식에 주목하면서 그것의 근저에 놓여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60억 화소의 이미지들: 전자감시사회의 이미지-체제 – 서동진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우리는 디지털 광학 장치를 통해 촬영, 보관, 전송, 송출, 전시되는 이미지들을 디지털 이미지로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게 된 이미지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이다. 매일 수억 개씩 인터넷을 부유하는 이미지들은 이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현저히 바꾸고 있다. 이를 두고 '디지털적 전환'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이 초래한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한다. 하나는 이미지가 더 이상 관람, 즉 보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한다는 것이다. 하룬 파로키의 말을 따르자면 이러한 이미지들은 가동적 이미지(operational image)라 할 수 있다.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들은 으레 이렇게 말한다. "제발 … 하세요." 즉 그것은 우리에게 "보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한편 대다수의 디지털 이미지들은 더 이상 관람자 없는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다. 수많은 감시카메라와 광학장치들이 생산하는 이미지들은 기계의 판독, 분류, 처리 등을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관객 없는 이미지들을 기계 시각(machine vision)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이미지의 두 가지 특성에 주목하며 전자감시사회의 이미지 풍경을 탐색한다.

시각문화예술로 보는 동시대 현상: 시선, 응시, 감시 – 주하영 전남대학교 교수

보는 것이 더 이상 믿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거나 몰래 엿보고 있다면, 이를 시각적 즐거움과 관조의 개념으로 살펴야 하는가? 아니면시각적 대상화로서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하는 것인가?
본 강의 "시각문화예술로 보는 동시대 현상"은 영상이 전 지구화되고, 일상화된 지금, 과연 동시대 미술은 어떻게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시각문화예술'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각문화(Visual Culture)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각성(The Visual), 시선, 감시, 통제의 개념에 대해 동시대 미술과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해 다각도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친애하는 빅 브라더〉 아티스트 토크 – 권은영 큐레이터 진행

– 〈보이는 보이드, 2021〉, 이연숙 작가
Collective Collection_이야기가 있는 곳
이연숙 작가는 일상의 경험과 장소 기억, 인식의 변화를 주제로 사적 공간과 공적인 공간 사이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내러티브를 드러내고자 한다. 본 강의는 공간과 장소의 의미화를 통해 현대 미술에서의 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주제한 작품을 소개하며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해볼 예정이다.
본다. 볼 수 있다. 볼 수밖에 없다. 보여진다. 보여질 수 있다. 보여질 수 밖에 없다.
혼자 거리를 걷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의식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된다. 또 누군가 역시 나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스크리닝 하고 있다.
우리는 공간에서 존재한다. 가시적인 공간과 비가시적인 공간의 사이를 유영하는 우리는 과연 어느 곳에서 존재하고 있을까?

– 〈달콤한 트루먼, 2021〉, 임용현 작가
빅 브라더가 만든 쇼의 주인공
미디어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은 양날의 검과 같다는 주제로 작업을 해왔고, 이번 전시 〈친애하는 빅 브라더〉를 통해 감시체계로서의 미디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게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
과거의 감시는 누군가를 불편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장치였다면 팬데믹 이후의 감시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체계적으로 작동한다. 감시의 시선이 이제는 불편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어 익숙하거나 안정적인 형태로 우리 주변 혹은 우리 자신이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주체가 되도록 한다. 분명히 감시체계는 누군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나에게는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동시에 그 시스템 안에서 자신이 남긴 디지털 흔적을 통해 감시체계의 견고함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긍정과 부정적인 의견으로 딱 잘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작품 "달콤한 트루먼"을 제작하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이다. 결론을 말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공유하는 작업이기에 이번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 본인의 생각과 작업의 과정들을 공유하며 우리가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대표 강사

한길석 중부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의 강단에 서다가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저로 《모빌리티, 존재에서 가치로》, 《현대 정치철학의 네 가지 흐름》, 《아주 오래된 질문들 : 고전철학의 새로운 발견》 등이 있고, 논문으로 〈토의민주주의론은 포스트 정치적인 것인가?〉, 〈떠도는 자들을 위한 장소〉, 〈현상함의 정치를 위하여: 조선 후기 공론정치의 두 유형에 대한 규범적 고찰〉 등이 있다.

서동진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에서 시각예술이론과 비평을 가르치고 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대의 홀씨〉(2020), 서울시립미술관북서울미술관 〈타이틀매치-함양아/서동진: 흔들리는 사람들에게〉(2020), 부산현대미술관 〈동시대-미술-비즈니스: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질서들〉(2021) 등 다양한 전시에 기획자, 작가로서 참여하였다.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동시대이후》, 《변증법의 낮잠》,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등이 있다.

주하영 전남대학교 교수
주하영은 현재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미술이론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문화예술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근 주요논문에는 〈존 아콤프라의 영국 흑인 영화에 표상된 인종주의와 정체성의 정치학〉, 〈카데르 아티아의 작품에 표상된 부조리에 대한 후기 식민주의적 재맥락화〉, 〈카라 워커의 작품에 표상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정치학과 대항 기념물〉 등이 있다. 저서에는 유러스컬렉션 공저, 《중국의 부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2021)가 있다. 또한, 시각문화예술 단체인 로드콜렉티브(ROADcollective)의 디렉터를 역임했고, 부산 비엔날레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 전시와 미디어 작업을 기획하고 있다.

권은영 큐레이터
권은영은 현재 아시아문화원 전시기획팀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홍익대학교 예술학 학사 및 석사, 중국 정부장학생으로 중앙미술학원 인문학원에서 예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공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에는 〈중국 현대미술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미술사적 고찰: 1978년 이후 정치사회적 변화와 미술의 관계〉, 〈21세기 중국 독립예술공간의 예술생태계 연구: 베이징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친애하는 빅 브라더〉(2021), 〈언·택트〉(2020) 전시 등을 기획했다.

이연숙 작가
홍익대학교에서 조소과를 그리고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한 후, 일상의 경험, 장소 기억, 인식의 변화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전작에서는 소용을 다하고 버려진 일상적 오브제를 통해 개인의 기억을 특정 사건과 결합하여 사회적 문제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었다. 최근 전시 〈Vanished Landscape_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안개는 없었다〉(2020), 〈Running stage_공간 그리고 그 장소〉(2020), 〈몸 소리 문〉(2020) 등에서 선보인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와 다수의 개인전에서, 관심사는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장소가 보여 주는 건축적 공간과 축적된 개인사적 내러티브에 주목하고 있는 작가는, 영상, 조각, 공간 설치와 퍼포먼스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회 현상 속에 존재하는 개인의 삶에 대한 공감각적인 서사 구조를 만들어 내는 장소 특정적 작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메이투데이(2021) 등에서 전시하였고, ZK/U Residency(201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ASN 레지던시(2018), 대구예술발전소(2018) 등에 참여하였다.

임용현 작가
런던예술대학(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에서 순수미술 석사를 졸업하고 프로젝션 맵핑, 인터렉티브 작업, 홀로그래픽 영상, 라이브퍼포먼스 등의 여러 매체를 이야기를 담아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미디어가 가지는 폭력성과 미디어를 소비하는 개인과 매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양면적 현상에 대한 관심이 작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심은 과거 영화와 방송 등 여러 미디어의 생산자 역할을 거쳐 오면서 자연스럽게 작업을 통해 비춰지게 되었다.
7회의 개인전과 하정웅청년작가전 〈빛2020〉, 스촨미대미술관,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다저우 515동굴미술관등 국내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으며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와 북경창작센터, 스와치그룹 상하이아트피스호텔 레지던시, 미디어아트레지던스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업을 이어가며 미디어 포화 시대에서 지향해야 할 여러 지점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

커리큘럼

차수	일자	주제	강사
제1강	10.2	포스트 파놉티콘적 감시 사회 앞에서	한길석 교수
제2강	10.9	60억 화소의 이미지들: 전자감시사회의 이미지-체제	서동진 교수
제3강	10.16	시각문화예술로 보는 동시대 현상: 시선, 응시, 감시	주하영 교수
제4강	10.23	〈친애하는 빅 브라더〉 아티스트 토크	권은영 큐레이터 이연숙 작가 임용현 작가

2021 ACC 시민아카데미 **9-10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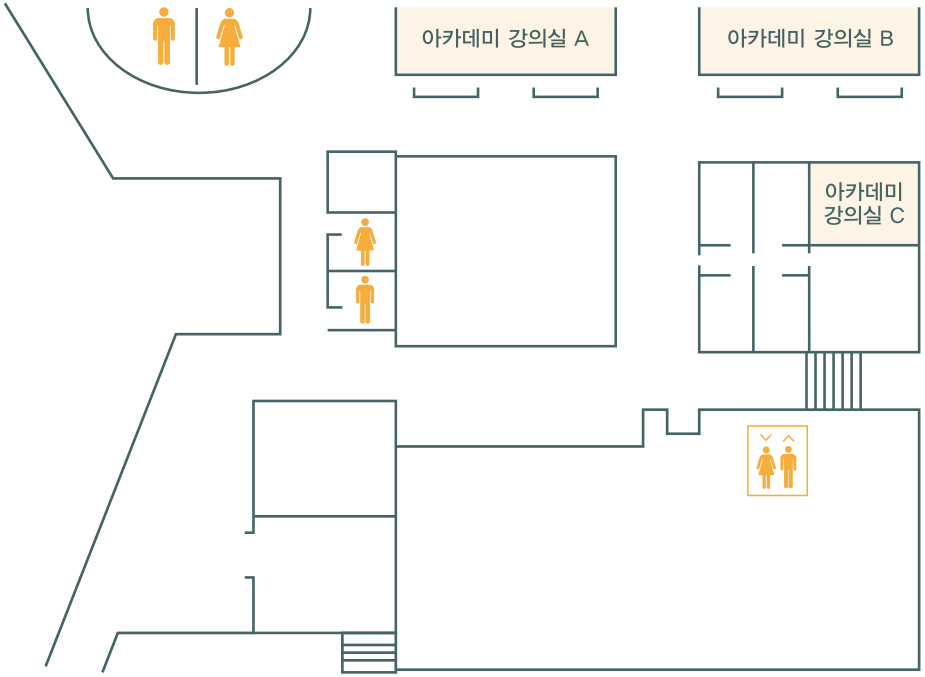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9/29	9/30	10/1	2
			• 9월 인문강좌: 한국의 여성 법률가들과 리더십 김소영 변호사 (문화정보원 극장3) 19:00~21:00	• 고독한 여행가: 아시아 근대 문화를 일군 사람들 (온라인 Zoom 화상강의) 18:00~20:00		• 친애하는 빅 브라더 (ACC 전시연계) (아카데미 강의실 B) 14:00~15:40
3	4	5	6	7	8	9
				• 고독한 여행가: 아시아 근대 문화를 일군 사람들 (온라인 Zoom 화상강의) 18:00~20:00		• 친애하는 빅 브라더 (ACC 전시연계) (아카데미 강의실 B) 14:00~15:40
10	11	12	13	14	15	16
		• 공동체에 진심인 편: 아시아 영화 속 타자와 윤리의 문제 (온라인 Zoom 화상강의) 19:00~21:00	• 10월 인문강좌: 행복의 조건 – 우리 결의 나르시시스트 정유정 작가 (문화정보원 극장3) 19:00~21:00	• 고독한 여행가: 아시아 근대 문화를 일군 사람들 (온라인 Zoom 화상강의) 18:00~20:00		• 친애하는 빅 브라더 (ACC 전시연계) (아카데미 강의실 B) 14:00~15:40
17	18	19	20	21	22	23
		• 공동체에 진심인 편: 아시아 영화 속 타자와 윤리의 문제 (온라인 Zoom 화상강의) 19:00~21:00 • 라이브클래식 XII (문화정보원 극장3) 19:00~21:00		• 고독한 여행가: 아시아 근대 문화를 일군 사람들 (온라인 Zoom 화상강의) 18:00~20:00		• 친애하는 빅 브라더 (ACC 전시연계) (아카데미 강의실 B) 14:00~15:40
24	25	26	27	28	29	30
		• 공동체에 진심인 편: 아시아 영화 속 타자와 윤리의 문제 (온라인 Zoom 화상강의) 19:00~21:00 • 라이브클래식 XII (문화정보원 극장3) 19:00~21:00				

2021 ACC 시민아카데미 **11월 일정**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 공동체에 진심인 편: 아시아 영화 속 타자와 윤리의 문제 (온라인 Zoom 화상강의) 19:00~21:00 • 라이브클래식 XII (예술극장 극장2) 19:00~21:00	• 11월 인문강좌: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대항해시대의 인류 김대식 KAIST 교수 (문화정보원 극장3) 19:00~21:00			
7	8	9	10	11	12	13
		• 라이브클래식 XII (예술극장 극장2) 19:00~21:00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강의실 안내

문화정보원 B2
아카데미 강의실 외



※ 아카데미 강의실 외 장소 안내
[극장2]는 예술극장, [극장3]은 문화정보원 B3 라이브러리파크에 위치해있습니다.

안내사항

신청안내

- 2021 하반기 ACC 시민아카데미 강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비회원이신 경우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수강 등록 안내
  일정: 2021. 9.16(목) 오전 10시 부터 개강일 전날까지

- 현장 등록안내
  장소 : 문화정보원 B3 라이브러리파크 안내데스크
  일정 : 홈페이지 수강등록 기간 내
  시간 : 화~금 / 10:00~18:00 (주말 및 휴관일 제외)

수강료 할인정책

- 수강료 전액 공제 (모집정원의 20%이내, 선착순) 최대 2과목 수강료 공제 가능
- 적용 대상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 유공자 포함(본인 또는 직계 가족)
  - 장애인 :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 관련증명서 제출 (본인 또는 직계 가족)
  - 의사상자 : 의상자증 소지자 또는 의사자 유족증 소지자 (본인에 한함)
-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신청 시 강좌 선택 후 수강료면제대상자 탭(클래스, 요금명) 클릭하여 신청
  ② 아카데미 담당자에게 증빙자료 메일 발송 (academy@aci-k.kr)
  ③ 담당자 확인 후 최종 승인 → 개별 연락

마감안내

- 수강신청 마감시간은 개강 당일 23:59입니다.
- 정원이 마감된 강좌는 대기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예약상태로 전환됩니다.
- 결제기한은 예약 전환일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이며, 결제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됩니다.
- 수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한 수강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결제안내

- 카드결제만 가능합니다.
- 예약 후 결제를 완료하여야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 예약 후 다음날 자정까지 결제하지 않을 시 예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환불안내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예매/신청조회] – [수강 신청내역]
- 현장방문 : 결제 시 이용한 카드 지참
- 환불처리 소요기간은 카드사 사정에 따라 1~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개강일 이후 환불은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만 가능합니다.

환불규정

- 강좌 시작일 이전 : 전액 환불
- 강좌 시작일 이후 강좌의 1/2 이전 : 이전 진행된 수업 횟수를 차감하여 부분 환불
- 강좌 시작일 이후 강좌의 1/2 이후 : 환불 불가
- 강좌 당일 환불시 수강 여부에 상관없이 수업 진행 주차를 포함하여 환불처리

기타문의

- 1899-5566
- academy@aci-k.kr (아시아문화원 교육콘텐츠개발팀)

오시는길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ACC 시민아카데미는 문화정보원에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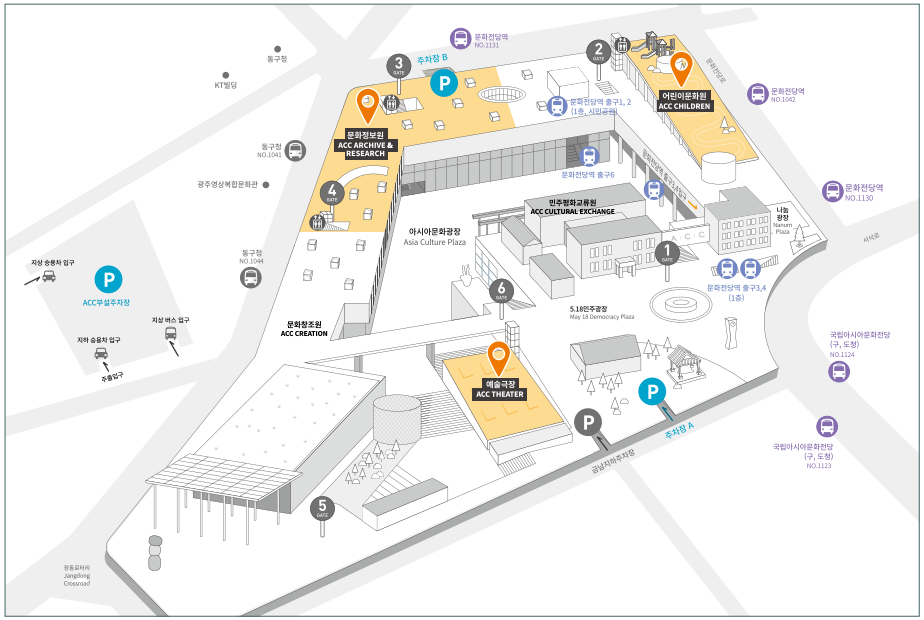
지하철이용시

1호선 문화전당역 하차 (5, 6번 출구로 나오시면 편리합니다.)

버스 이용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는 문화전당역 하차

지선 : 수완12, 1187, 518, 석곡87, 송정98, 풍암61, 첨단95, 금남55, 금남57
급행 : 첨단09, 순환01, 진월07, 풍암06
간선 : 지원45, 금호36, 봉선37, 봉선27, 일곡28, 지원15, 운림35, 진월17, 문흥39
공항 : 1000

주차안내

주차장 a : 전일빌딩 옆길 금남로 지하상가 주차장 방향 (예술극장 방면)
주차장 b : 동구청 앞 교차로 농협 맞은편 (어린이문화원 방면)
부설주차장 : 문화창조원 건너편 동명동 방향 (하늘마당 방면)